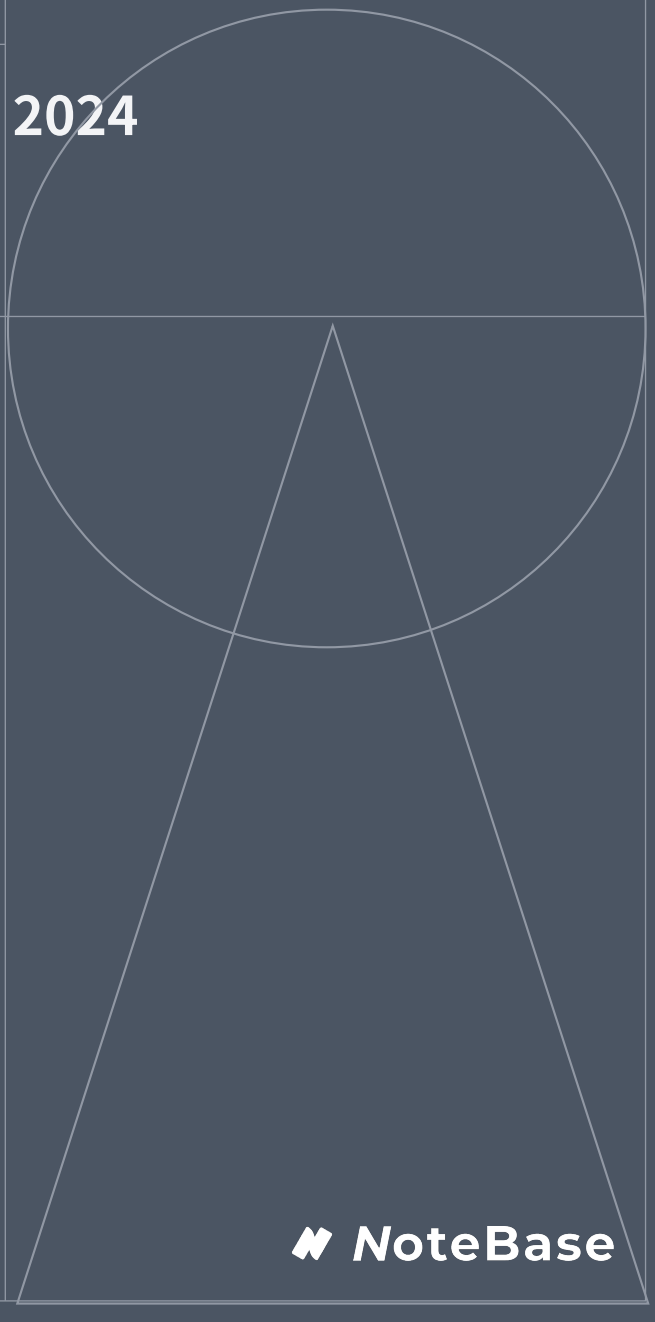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4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4

문 1. 다음 강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IQ도 높을까요? 미국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IQ는 성인 평균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지능이 곧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골먼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상황적이고 사회적이라는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괜찮은 수준의 IQ를 사회적 기술 및 인간이 가진 여타의 역량들과 잘 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① 강연의 순서를 안내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청중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강연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③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화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④ 강연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연에서 화제를 설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은 IQ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기술과 여러 역량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견해로 뒷받침한다.

핵심 개념

강연 순서 안내는 '먼저', '다음으로'처럼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예고하는 방식이다. 청중 반응 확인은 질문·표정·호응 등을 살펴 내용을 조절하는 상호 작용 방식이다. 시청각 자료 활용은 사진·도표·영상·실물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견해 인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말이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강연의 전개 순서를 미리 안내하는 표현이 없다. 틀린 표현은 '강연의 순서를 안내함'이며, 이 글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내용을 설명한다.

② X: 청중의 질문·표정·호응을 확인하거나 그에 맞추어 내용을 바꾸는 장면이 없다. 틀린 표현은 '청중의 반응을 확인함'이며, 일방적으로 근거를 들어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③ X: 사진, 도표,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 내용이 없다. 틀린 표현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이며, 언어적 근거인 연구 결과와 학자의 견해를 활용하고 있다.

④ O: '인지심리학자 골먼에 따르면'이라고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성공에 사회적·상황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포인트

'미국 ◯◯대학 연구 결과'와 '인지심리학자 골먼에 따르면'은 모두 근거 제시이지만, ④의 직접적인 근거는 골먼이라는 전문가의 견해 인용이다.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이를 순서 안내·청중 반응 확인·시청각 자료 활용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에 전개를 예고하는 연결 표현이 있으면 순서 안내, 청중의 반응과 그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반응 확인, 사진·도표·영상이 있으면 시청각 자료 활용으로 판단한다. 학자·전문가·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면 신뢰성을 높이는 인용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학자·연구 결과 인용은 신뢰성 강화, 사진·도표 제시는 시청각 자료 활용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어제 백화점에 갔었는데, 점원이 “손님, 지불액은 삼십만 원이세요.”라고 하더라고. 이런 과도한 표현을 ‘사물 높임’이라고 하던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게 잘못된 표현인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을: 이런 표현은 분명 잘못됐어.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80% 이상이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인 걸 알면서도 고객이 이 같은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더라고.
병: 나는 ‘사물 높임’을 고쳐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어라는 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기 마련이잖아. 실제 그 표현을 쓰는 언중이 많다면 해당 표현을 표준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정: 문법적으로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등을 높일 때 실현되잖아? 갑이 든 사례에서 지불액은 원래 갑의 소유였으니까 점원의 발화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① 갑과 을은 사물 높임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② 을과 정은 사물 높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③ 갑과 병은 사물 높임을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견해를 함께한다.
④ 병과 정은 사물 높임을 고쳐야 할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를 함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물 높임’의 사용을 두고 대화 참여자들이 원인과 문법적 정당성, 개선 필요성에 관해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물 높임은 사람을 높이려는 의도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이나 대상에 높임 표현을 쓰는 현상이다. 갑은 ‘지불액은 삼십만 원이세요’와 같은 표현을 잘못된 표현을 몰라서 쓰는 것으로 보고, 을은 종사자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고객의 선호 때문에 쓰는 것으로 본다. 병은 언중의 사용이 많으면 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정은 간접 높임이 소유물 등을 높일 때에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발화를 문법적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은 사물 높임을 쓰는 사람이 그 표현이 잘못된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을은 종사자들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고객이 선호하여 불가피하게 쓴다고 보므로, 두 사람은 사용 원인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

② O: 을은 사물 높임을 '분명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 정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신체 부위나 소유물 등에도 될 수 있다고 하여, 사물 높임을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X: 갑은 사물 높임을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잘못된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현상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갑과 병은 … 견해를 함께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병만 사물 높임을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언어 현상으로 본다.

④ O: 병은 사물 높임을 고쳐야 할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 해당 발화를 문법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므로, 두 사람은 사물 높임을 반드시 고쳐야 할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가 같다.

오답 포인트

③은 병의 '언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견해를 갑에게도 적용한 것이 함정이다. 갑은 사용자를 비난하기보다 잘못된 표현을 모르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을 뿐, 사물 높임 자체를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 분석에서는 각 인물의 판단 대상을 나누어 확인한다. 사용 원인, 표현의 문법적 정당성, 고쳐야 하는지의 세 기준으로 발언을 분류한 뒤, 두 인물의 견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갑은 무지, 을은 고객 선호, 병은 자연스러운 변화, 정은 간접 높임 가능성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는 좋은 이웃을 ㉠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①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만났다.
② 새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났다.
③ 과일이 제철을 만났다.
④ 배가 풍랑을 만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만나다'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뜻인지, 사물의 접촉·시기 도래·사건 조우를 뜻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람을 만나다는 어떤 사람을 새로 알게 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사물이나 장소가 만나다는 서로 맞닿는다는 뜻이고, 때를 만나다는 알맞은 시기가 온다는 뜻이며, 일을 만나다는 어떤 일을 겪거나 맞닥뜨린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하늘과 수평선이 만났다'의 '만났다'는 두 대상이 서로 맞닿아 보인다는 뜻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뜻이 아니므로, '만났다'는 '맞닿아 보였다'로 이해한다.
② O - '좋은 상사를 만났다'는 사람을 새로 알게 되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의 '만나'와 문맥적 의미가 같다.
③ X - '과일이 제철을 만났다'의 '만났다'는 제철이라는 알맞은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만났다'는 '제철이 되었다'로 이해한다.
④ X - '배가 풍랑을 만났다'의 '만났다'는 풍랑을 맞닥뜨리거나 겪었다는 뜻이다. 사람을 만나는 뜻이 아니므로, '만났다'는 '풍랑을 겪었다'로 바꾼다.

오답 포인트

같은 '만나다'라도 목적어가 사람인지, 서로 닿는 사물인지, 시기인지, 겪는 사건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③의 '제철'과 ④의 '풍랑'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과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는 함께 쓰인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사람을 목적어로 하여 새로 알게 되거나 관계를 맺는 뜻이면 같은 의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람을 만나면 관계를 맺고, 때를 만나면 시기가 오며, 일을 만나면 일을 겪는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언어 습득에서 자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어린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자극만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복잡한 문법적인 제약을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를 스스로 알아나간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어린아이들은 만 4~5세까지 접촉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같이 짧은 기간의 제한적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는가.
(다) 물론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이 완전히 같은 성질은 아니다. 걷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지만 언어 능력은 특정 시기에 주변의 언어에 노출되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언어 학습 자극이 필요한 셈이다.
(라) 이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은 인간은 언어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아이가 언어에 대해 알고 태어난다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 자극을 받으면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나) - (라) - (가) - (다)
③ (나) - (라) - (다) - (가)
④ (다) - (가) - (라) - (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근거로 언어 습득에서 자극과 선천적 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단의 전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 어린아이가 제한된 언어 경험만으로 복잡한 언어 체계를 어떻게 배우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2. (라) — '이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으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3. (다) — (라)의 걷기 비유를 받아 언어 능력은 걷기와 달리 주변 언어에 노출되어야 발현된다고 보완한다.
4. (가) — 자극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자극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법 습득을 근거로 선천적 지식을 결론짓는다.

왜 이 순서인가: (라)의 '이에 대한'은 (나)의 질문을 받아야 하며, (다)의 '물론'은 (라)에서 제시한 걷기 비유를 전제로 한다. 이어 (가)는 (다)에서 인정한 자극의 필요성을 '하지만'으로 제한하면서 선천성 논의로 나아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하지만'은 자극의 중요성을 먼저 인정한 내용 뒤에 와야 하고, (가)는 앞 문단 없이 첫머리에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가)로 시작함 → 올바르게는 (나)에서 언어 습득의 문제를 제기한 뒤 (라)가 그 답을 제시한다.
② X — (라) 다음에는 걷기 비유를 직접 받아 '물론'으로 차이를 설명하는 (다)가 와야 한다. 틀린 순서: (라)—(가)—(다) → 올바르게는 (라)—(다)—(가)이다.
③ O — (나)의 문제 제기 → (라)의 촘스키 이론 제시 → (다)의 걷기 비유 보완 → (가)의 자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선천성 결론으로 이어져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④ X — (다)의 '물론'은 앞에서 걷기와 언어 능력을 비교한 (라)를 전제로 하므로 첫 문단이 될 수 없다. 틀린 순서: (다)로 시작함 → 올바르게는 (나)—(라)—(다)—(가)이다.

오답 포인트

(라)와 (다)는 모두 걷기 비유를 다루므로 붙여야 한다. 특히 (다)의 '물론'은 (라)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비교를 바로 받아 그 차이를 설명한다. (가)의 '하지만'도 자극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 뒤에서만 자연스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배열에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이러한' 같은 지시어의 선행 내용을 찾고, 이어 '물론', '하지만', '따라서'가 각각 보완·전환·결론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지시어의 대상과 접속 표현의 논리 관계가 모두 이어지는 배열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문제 제기 → 이론의 답 → 비유의 보완 → 결론의 심화 순서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 이름의 경우,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는 첫 글자로 장수와 영화로움을 뜻하는 '영(永/榮)'이 선호되었다. 전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래도록 영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영수, 영철' 등의 이름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 발전기에는 선호 글자에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성(成/盛)'이 선호되었고 1990년대에는 '준(俊/埈)'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시대의 부모들은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훈, 성호, 준영, 준혁' 등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여성 이름의 경우에도 연대별로 이름 첫 글자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다. 1950년대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榮/泳)'이 선호되었다. 세상을 잘 헤쳐 나가면서 영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숙, 영희' 등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1960년대에는 '미숙, 미영'과 같이 '미(美)'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높은 가치를 두기 시작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980년대 여성 이름 가운데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이름은 '지혜'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여성의 지혜나 지성을 높은 사회적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① 경제 상황에 따라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

②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다.

③ 이름으로 선호하는 글자에는 그 시대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반영된다.

④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현상이 이름으로 선호하는 글자에 드러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대별 이름의 선호 글자에 당시 사회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 중시하는 가치가 반영된다는 글의 중심 생각을 묻는다.

핵심 개념

중심 생각은 글 전체의 사례를 포괄하는 핵심 주장이다. 이 글은 남녀 이름의 선호 글자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례를 통해, 이름에 시대적 사회 가치와 기대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1950년대의 '영'은 영화로운 삶, 경제 발전기의 '성'·'준'은 성공과 출세, 여성 이름의 '미'와 '지혜'는 외적 아름다움과 지성에 대한 가치를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제 발전기의 남성 이름 변화는 경제 상황과 관련되지만, 여성 이름의 '미', '지혜'는 외적 아름다움과 지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경제 상황에 따라'이다. 올바르게는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중시 가치에 따라 이름의 선호 글자가 달라진다고 한다.

② X: 시대별 선호 경향은 알 수 있어도,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이름의 선호 글자를 통해 특정 시대의 이름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③ O: '영'에는 영화로운 삶, '성'·'준'에는 성공과 높은 지위, '미'에는 외적 아름다움, '지혜'에는 지성과 지혜를 중시한 가치가 담겼다. 따라서 시대마다 중시한 가치가 이름의 선호 글자에 반영된다는 내용이 글 전체를 포괄한다.

④ X: 글은 남녀 이름에 담긴 사회적 기대와 가치의 차이를 설명할 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현상을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차별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성별과 시대에 따라 이름에 반영되는 사회적 기대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부 사례인 경제 발전기만을 내세워 글의 범위를 좁히고, ②는 시대적 경향의 추정을 개인의 출생 시기 판별로 확대한다. ④는 성별에 따른 이름의 차이를 '차별'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바꾼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생각을 고를 때에는 각 문단의 사례를 모두 묶는 공통 내용을 찾는다. 일부 시대·성별·사례만 설명하거나, 글에 없는 결과를 덧붙인 선택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이름의 선호 글자 변화는 시대가 바라는 삶과 중시 가치의 변화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개요의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소음 공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가)
Ⅱ. (나)
1. 교통 소음
2. 산업 소음
3. 생활 소음
4. 기타
Ⅲ. (다)
1. 수면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
2. 청력 손상 및 난청 유발
3. 생활 및 학습 환경 조성 불가
4. 사회적 갈등 야기
Ⅳ. 소음 공해의 개선 방안
1. 개인 차원의 개선 방안
2. 지역 사회 차원의 개선 방안
3. (라)

① (가): 소음 공해의 개념과 심각성
② (나): 원인에 따른 소음 공해의 유형
③ (다): 소음 공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④ (라):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요의 상위 항목이 하위 항목 전체를 빠짐없이 포괄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요는 글의 논리적 뼈대이므로 상위 항목은 그 아래의 모든 하위 항목을 아울러야 한다. 소음 공해의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영향은 건강·생활·학습·사회 관계 등 여러 영역에 나타난다. 개선 방안은 개인, 지역 사회, 정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I은 제목 아래에서 소음 공해의 개념과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제시하는 항목으로 적절하다.
② O: II의 하위 항목은 교통·산업·생활·기타 소음으로, 소음 공해를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III에는 수면 장애와 청력 손상뿐 아니라 '생활 및 학습 환경 조성 불가', '사회적 갈등 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소음 공해가 건강·생활·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소음 공해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IV에서 개인 차원, 지역 사회 차원 다음에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두는 것은 개선 주체를 단계별로 나눈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면 장애와 청력 손상만 보고 III 전체를 신체 영향으로 한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생활·학습 환경과 사회적 갈등도 하위 항목에 있으므로 상위 항목의 범위가 너무 좁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위 항목에 딸린 하위 항목을 모두 확인한 뒤, 제시된 제목이 그 내용을 빠짐없이 묶는지 판단한다. 하위 항목의 일부만 설명하는 제목은 부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유형은 원인, 영향은 건강·생활·사회, 개선은 개인·지역 사회·정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 경어법에서 ㉠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이다. 그런데 나이가 경어법 사용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 차이에 따라 경어법을 사용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인 나이도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어려서는 반말을 쓰던 사람들이 ㉡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후에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직위'가 경어법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존대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에서 ㉢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대개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상급자도 자기보다 연장자인 하급자에게 나이에 맞는 대우를 해 주지만 그때의 정중함보다는 하급자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를 대하는 정중함의 정도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이나 직위와 같은 요인 외에도 '유대'도 우리말에서 경어법 결정의 요인이다.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친해지면 반말하는 사이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나이, 직위 등과 같은 ㉣ 권세의 영향력이 유대의 영향력보다 작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① ㉠: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 차이이다
② ㉡: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후에도 서로 반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③ ㉢: 직위와 나이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대개 나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④ ㉣: 권세의 영향력이 유대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점이 서구어와 다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말 경어법에서 나이·직위 같은 권세와 친분 관계인 유대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맥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세는 나이·직위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위계에서 생기는 영향력이다. 유대는 친분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정도에서 생기는 영향력이다. 우리말은 유대보다 권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 친한 사이여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나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만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절대적 나이도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나이 차이'가 틀린 표현이다. 지문은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경어법이 단순히 나이 차이에만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어떤 인물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이다.'이다.

② X: '서로 반말을 쓰기도'가 틀린 표현이다. 지문에서는 어려서 반말을 쓰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뒤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후에 서로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이다.

③ X: '나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지문은 직위와 나이가 충돌하면 대개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대개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이다.

④ O: 우리말에서는 나이·직위 같은 권세의 영향력이 친분이라는 유대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작다'를 '크다'로 고친 것은 뒤의 '가까운 사이여도 상급자에게 반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과도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나이'와 '나이 차이'를 같은 뜻으로 바꾸게 하며, ②와 ③은 지문에 제시된 존댓말·직위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게 한다. 특히 ④는 '권세가 유대보다 작다'라는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친한 관계보다 상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뒤 문장을 근거로 '크다'로 수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형 문항에서는 밑줄 친 한 단어만 보지 않고, 그 뒤의 구체적 사례가 어떤 관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한다. 친해도 상급자에게 반말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 유대보다 권세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리말 경어법: 유대보다 권세가 강하고, 직위와 나이가 충돌하면 대체로 직위가 우선한다.

NoteBase

문 8. ㉠~㉣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서 간 ㉡ 상호 ㉢ 대화와 ㉣ 교류가 필요하다.

① ㉠: 會士
② ㉡: 相互
③ ㉢: 對話
④ ㉣: 交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다. 한자어는 각 한자의 음뿐 아니라 그 한자가 나타내는 뜻까지 단어의 의미와 맞아야 한다.

핵심 개념

회사(會社)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업을 하는 조직을 뜻한다. 상호(相互)는 서로, 대화(對話)는 마주 대하여 말함, 교류(交流)는 서로 오가며 사귀거나 주고받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사의 한자 표기는 會社이다. 제시된 '會士'에서 '士'는 선비 사이므로 회사의 '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會士' → 올바르게는 '會社'이다.
② O: 상호는 '서로'라는 뜻이므로 相互로 쓴다. '相'은 서로 상, '互'는 서로 호이다.
③ O: 대화는 서로 마주 대하여 말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對話로 쓴다. '對'는 대할 대, '話'는 말할 화이다.
④ O: 교류는 서로 오가며 사귀거나 주고받는 것이므로 交流로 쓴다. '交'는 사귈 교, '流'는 흐를 류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회사'의 '사'를 같은 소리의 '士'로 바꾼 데 함정이 있다. 한자어는 음이 같아도 뜻이 다르면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먼저 단어 전체의 뜻을 확인한 뒤, 각 글자가 그 뜻에 맞는 한자인지 대조한다. 특히 동음 한자인 '社'와 '士'처럼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글자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회사=會社, 선비=士이다. 소리가 같은 '사'라도 뜻에 따라 한자가 달라진다.

NoteBase

문 9. ㉠~㉣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① ㉠은 의인법을 통해 세계와 자아의 갈등을 표현한다.
② ㉡은 제유법을 통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③ ㉢은 반어법을 통해 이상적 자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다.
④ ㉣은 청유법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표현 방식인 의인법·직유법·설의법·청유법을 구별하고, 그것이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성질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직유법은 '처럼, 같이' 등을 써 두 대상을 직접 견주는 표현이다. 설의법은 질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청유법은 '가자'처럼 함께 행동할 것을 권하는 표현이다. 이 시에서 '백골'은 화자와 분리된 또 하나의 자아로 의인화되고,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에는 백골이 사람처럼 따라오고 눕는 의인법이 쓰였다. 그러나 이는 세계와 자아의 갈등보다는 백골로 형상화한 또 하나의 자아와 마주하는 자아의 분열·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며, 올바르게는 '분열된 자아 사이의 내면적 갈등'이다.

② X. '소리처럼'은 바람을 소리에 직접 견주는 직유법이다.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또는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제유법'이며, 올바르게는 '직유법'이다. 이 표현은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X.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 물음 형식으로 화자의 고뇌를 강조하는 설의법이다. 말과 속뜻을 반대로 드러내는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반어법'이며, 올바르게는 '설의법'이다. 이는 이상적 자아를 향한 지향과 현실적 자아의 괴리에서 오는 내면의 고뇌를 드러낸다.

④ O.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의 '가자'는 함께 가기를 권하는 청유형 표현이다. 화자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②는 '처럼'이라는 직유 표지를 놓치고 제유법으로, ③은 물음 형식의 설의법을 반어법으로 바꾸어 놓았다. ①은 의인법 자체는 맞지만 갈등의 대상을 '세계와 자아'로 넓혀 자아 내부의 분열이라는 핵심을 흐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람 아닌 대상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의인법, '처럼·같이'로 직접 견주면 직유법으로 판단한다. 물음표가 있어도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서를 강조하면 설의법이며, '가자'처럼 함께 행동을 권하면 청유법이다. 이후에는 표현 방식과 그 표현이 겨냥하는 정서·대상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백골은 분열된 자아, ‘소리처럼’은 직유, ‘것이냐’는 설의, ‘가자’는 청유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오뉘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옥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 손창섭, 「비 오는 날」에서 —

① '비'는 원구에게 동욱 남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② 동욱 남매는 가난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③ 맑은 날에 원구는 동욱 남매를 생각하지 않는다.

④ 원구는 동욱 남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의 이미지가 원구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서와 동욱 남매를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는 원구에게 동욱 오누이의 음산하고 가난한 생활을 연상시키는 소재이다. 원구의 정서는 남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연민과 무거움이며, 비는 그 정서를 더욱 짙게 만드는 매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동욱과 동욱의 여동생을 생각한다. 따라서 비는 원구에게 동욱 남매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② X: '가난해도 행복한 삶'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제시문은 남매의 생활 풍경을 '음산한' 것으로, 그들의 방을 '어두운' 것으로 묘사한다. 올바르게는 동욱 남매는 가난하고 음산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③ X: '생각하지 않는다'가 틀렸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오누이의 생활을 생각하면'이라고 하였으므로, 원구는 맑은 날에도 남매를 생각한다.
④ X: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가 틀렸다. 원구는 비 내리는 날 남매의 처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빗물 소리를 느낀다. 올바르게는 원구는 동욱 남매의 가난하고 음산한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가난을 행복으로 바꾸고, ③은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라는 양보 표현을 부정으로 바꾸며, ④는 연민의 정서를 비판으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태도는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우울하게',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는 비판보다 연민과 안타까움을 뒷받침한다. '비록' 뒤의 내용은 앞 상황과 달라도 뒤의 상황이 성립함을 뜻하므로 양보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는 동욱 남매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 원구의 정서는 비판이 아니라 연민이다.

NoteBase

문 11. (가)와 (나)의 종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朔風(삭풍)은 나모 긋틱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춘듸
萬里邊城(만리변성)에 一長劒(일장검) 집고 셔셔
긴 ᄑᆞ람 큰 ᄒᆞᆫ소릐에 거칠 거시 없세라

(나) 閑山(한산)셤 ᄃᆞᆯ 붉근 밤의 戍樓(수루)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픠 ᄎᆞ고 기픈 시름 ᄒᆞ는 적의
어듸셔 一聲胡笳(일성호가)는 놈의 애를 긋ᄂᆞ니

① (가): 호방함
(나): 호방함

② (가): 호방함
(나): 애달픔

③ (가): 애달픔
(나): 호방함

④ (가): 애달픔
(나): 애달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와 (나)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호방함과 애달픔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호방함은 넓고 거침없는 기상과 씩씩한 태도가 드러나는 정서이다. (가)는 삭풍·명월·만리변성의 장면에서 장검을 짚고 서서 큰 소리를 내는 화자의 기개를 나타낸다.
애달픔은 외로움이나 근심 때문에 마음이 절절하고 안타까운 정서이다. (나)는 홀로 수루에 앉아 깊은 시름을 하는 가운데 피리 소리가 남의 애를 끊는다고 하여 이러한 정서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호방함으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나)의 '큰 칼'만 보고 호방함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혼자 앉아', '깊은 시름', '남의 애를 끊나니'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애달픔이다. 틀린 표현 '(나) 호방함' → 올바르게는 '(나) 애달픔'이다.

② O
(가)는 '일장검'을 짚고 '긴 파람 큰 한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거침없는 기상을 드러내므로 호방함에 해당한다. (나)는 깊은 시름 속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애가 끊긴다고 하므로 애달픔에 해당한다.

③ X
(가)의 '장검', '큰 한 소리', '거칠 것이 없세라'는 애달픔이 아니라 강인하고 씩씩한 기상을 나타낸다. 또한 (나)는 호방함이 아니라 애달픔이다. 틀린 표현 '(가) 애달픔, (나) 호방함' → 올바르게는 '(가) 호방함, (나) 애달픔'이다.

④ X
(나)를 애달픔으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가)는 변방에서 장검을 짚고 당당히 서 있는 화자의 호방한 기개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 '(가) 애달픔' → 올바르게는 '(가) 호방함'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큰 칼'과 (가)의 변방 배경은 모두 강한 분위기를 만들지만, 정서는 핵심 표현으로 판단한다. (나)는 '혼자', '깊은 시름', '남의 애'가 중심이므로 호방함이 아니라 애달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를 판단할 때에는 소재 하나만 보지 않고 화자의 태도와 직접적인 정서어를 함께 확인한다. 당당한 행동과 거침없는 어조는 호방함, 외로움·시름·애와 같은 말은 애달픔의 근거가 된다.

암기 포인트

장검을 짚고 큰 소리친 (가)는 호방함, 홀로 시름하며 피리 소리를 들은 (나)는 애달픔이다.

NoteBase

문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참 이리 노닐 적에 난데없이 독수리가 살 쏘듯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 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 정신이 또 위급하다.
토끼 스스로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거니와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오.' 생각하며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중 문득 한 꾀를 얻고 말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하여 모은 양식 쓸데없어 한이더니, 오늘로써 만나니 늦었으나 어서 갑시다."
"무슨 음식 있노라 달콤한 말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내가 수중 용왕이 아니니 내 어찌 너한테 속으랴."
"여보 아주머니, 토진(吐盡)하는 정담을 들어 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 있고 저리할 사돈 있다 함과 같이 수부(水府)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이거니와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터이거늘 어찌 감히 속이리까. 건너 마을 이동지가 사냥하노라고 나를 몹시 놀래기로 그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맏배 병아리 사십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 오고, 제일 긴한 것은 용궁에 있던 ㉠ 의사(意思) 주머니가 내게 있으니 이 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나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가 다 있지마는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니, 나와 같이 어서 갑시다.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자손에게까지 전하여 누리면 아니 좋을손가."
미련한 수리가 마음이 솔깃하여,
"아무러나 가보자."

— 작자 미상, 「토끼전」에서 —

* 토진(吐盡): 간과 쓸개를 다 토한다는 뜻으로, 실정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말함
** 수부(水府):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

① 토끼가 배고픈 독수리를 속이기 위한 소재이다.
② 토끼가 독수리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③ 토끼가 꾀를 발휘해 독수리에게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④ 토끼가 자신보다 힘이 센 독수리에게 붙잡혀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제시된 소재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끼전」에서 ㉠ '의사 주머니'가 사건 전개에서 하는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의사 주머니는 실제 보물이 아니라 토끼가 독수리를 수부로 유인하려고 꾸며 낸 소재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소재는 작품 속 사건을 이끌고 인물의 갈등이나 행동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이 장면의 '의사 주머니'는 독수리에게 잡힌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말의 대상이며, 독수리의 관심을 수부의 보물로 돌려 토끼가 함께 이동할 계기를 만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토끼는 배고픈 독수리에게 '의사 주머니'를 가져가면 자손에게까지 전할 좋은 보배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는 독수리의 욕심을 이용해 속이기 위한 소재이다.
② O: 독수리의 관심은 처음에는 사냥감인 토끼에게 있었으나, 의사 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수부의 보물로 옮겨 간다. 따라서 토끼가 독수리의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③ X: '독수리에게서 벗어났음'은 이 장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독수리가 '아무려나 가보자'라고 하여 수부로 가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틀린 표현은 '벗어났음'이며, 올바르게는 토끼가 독수리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꾀를 발휘했음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④ O: 토끼는 독수리에게 사로잡혀 죽을 위기에 놓였고, 그 열세의 상황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의사 주머니 이야기를 꺼낸다.

오답 포인트

③은 토끼의 꾀가 성공한 뒤의 결과를 현재 장면에 앞당겨 놓은 선지이다. 의사 주머니는 탈출의 '완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속여 이동시키는 탈출의 '계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소설의 소재 기능은 소재가 등장한 직후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로 판단한다. 이 장면에서는 의사 주머니의 제시 뒤 독수리의 관심이 보물로 옮겨가므로,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인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의사 주머니: 실제 보물 아님, 독수리를 수부로 유인하는 토끼의 탈출 계기이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말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많은 난관이 산재(散在)해 있다.
② 어차피(於此彼) 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③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일체(一切)의 책임을 졌다.
④ 과열된 경기를 부양(浮揚)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의 뜻을 알고 문맥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부양'은 침체되거나 가라앉은 대상의 상태를 끌어올린다는 뜻임을 묻는다.

핵심 개념

산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음을 뜻한다. 어차피는 이러나저러나 결국에는이라는 뜻이다. 일체는 모든 것 또는 전부를 뜻한다. 부양은 물가나 경제 따위를 가라앉지 않게 하거나 끌어올림을 뜻하므로, 침체된 경기와 결합하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산재하다'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므로, 많은 난관이 여기저기 있음을 나타내는 문맥에 적절하다.
② O: '어차피'는 이러나저러나 결국에는이라는 뜻이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문맥에 적절하다.
③ O: '일체'는 모든 것, 전부라는 뜻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졌다는 문맥에 적절하다.
④ X: '과열된 경기'는 이미 지나치게 활발한 상태이므로 이를 더 끌어올린다는 '부양'과 어울리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과열된 경기를 부양하는'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또는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는'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경기 부양'이라는 익숙한 결합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부양의 대상은 침체되거나 가라앉은 경기이며, 과열된 경기는 안정시키거나 진정시켜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의 사전적 뜻만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이 요구하는 대상의 상태까지 함께 확인한다. '끌어올리다'의 뜻을 가진 말은 낮거나 침체된 대상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경기 부양은 침체된 경기, 과열된 경기는 안정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감탄사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감탄사의 종류에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간투 감탄사가 있다. 감정 감탄사는 즉석에서 느낀 대로 표현한다. 놀람, 실망, 기쁨, 안심 등 어떤 감정과 관련된 반응이냐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청자에 대한 의식이 약하므로 혼잣말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가)(이)라는 감정 감탄사를 사용한다.
의지 감탄사는 소통에 대한 의지나 태도를 표현한다. 대답, 부름, 명령 등 어떤 의지나 태도와 관련된 반응이냐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청자에 대한 의식이 강하므로 혼잣말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간투 감탄사는 말하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다)(이)라는 간투 감탄사가 자주 사용된다.
ㄱ. 너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ㄴ.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음'
ㄷ.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에게 '쉿!'

① (가): ㄱ, (나): ㄴ, (다): ㄷ
② (가): ㄱ, (나): ㄷ, (다): ㄴ
③ (가): ㄴ, (나): ㄱ, (다): ㄷ
④ (가): ㄴ, (나): ㄷ, (다): 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의지 감탄사·간투 감탄사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예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정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즉각 드러내는 감탄사이며, '아이고'가 이에 해당한다.
의지 감탄사는 상대방에게 대답·부름·명령 등의 의지나 태도를 나타내는 감탄사이며, 아이를 조용히 시키는 '쉿!'이 이에 해당한다.
간투 감탄사는 말을 준비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쓰는 감탄사이며, 말할 내용을 생각하며 하는 '음'이 이에 해당한다.
감정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 의지 감탄사는 청자 지향적 태도, 간투 감탄사는 말하기의 틈을 메우는 기능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ㄱ은 맞지만, (나)-ㄴ과 (다)-ㄷ의 연결이 틀리다. ‘음’은 말할 내용을 생각하며 쓰는 간투 감탄사이고, ‘쉿!’은 청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지 감탄사이다. 틀린 연결 ‘(나)-ㄴ, (다)-ㄷ’ → ‘(나)-ㄷ, (다)-ㄴ’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아이고’는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 나타내므로 감정 감탄사이고, ‘쉿!’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의지 감탄사이며, ‘음’은 말할 내용을 준비하며 쓰므로 간투 감탄사이다.
③ X. (가)-ㄴ, (나)-ㄱ, (다)-ㄷ의 연결이 모두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 ‘(가)-ㄴ, (나)-ㄱ, (다)-ㄷ’ → ‘(가)-ㄱ, (나)-ㄷ, (다)-ㄴ’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가)-ㄴ, (나)-ㄷ, (다)-ㄱ의 연결이 모두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 ‘(가)-ㄴ, (나)-ㄷ, (다)-ㄱ’ → ‘(가)-ㄱ, (나)-ㄷ, (다)-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음’도 화자의 소리라는 이유로 감정 감탄사로, ‘쉿!’도 말 사이에 들어가는 짧은 말이라는 이유로 간투 감탄사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음’은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기능이 핵심이고, ‘쉿!’은 청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지와 태도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탄사가 나온 상황에서 먼저 화자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인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것인지, 말할 내용을 준비하며 잠시 이어 가는 말인지를 판단한다. 각각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간투 감탄사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아이고=감정, 쉿!=의지, 음=간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① ㉠: 햇살
② ㉡: 윗니
③ ㉢: 훗날
④ ㉣: 댓잎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앞말의 성격과 뒷말 첫소리에 따라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우리말 합성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도 같은 음운 조건이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다만 어느 항에 드는지는 앞말이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로 가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햇살'은 '해+살'의 순우리말 합성어이다. 뒷말 '살'의 첫소리 ㅅ이 된소리로 나므로 ㄱ, 즉 1.(1)의 사례이다.
② O: '윗니'는 '위+니'의 순우리말 합성어이다. 뒷말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윈니]로 나므로 ㄴ, 즉 1.(2)의 사례이다.
③ O: '훗날'은 한자어 '후(後)'와 순우리말 '날'이 결합한 말이다. 뒷말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훈날]로 나므로 ㄷ, 즉 2.(2)의 사례이다.
④ X: 틀린 대응은 'ㄹ'이다. '댓잎'은 순우리말 '대'와 '잎'이 결합한 말이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잎'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댄닙]으로 난다. 따라서 ㄹ인 2.(3)이 아니라 1.(3)의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댓잎’에 사이시옷이 쓰인다는 사실만 보고 2.(3)으로 분류하면 틀린다. 사이시옷 표기의 유무와 함께 앞말 ‘대’의 어종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확인한 뒤, 앞말이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 ㄴ·ㅁ, 모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이시옷은 소리 조건을 보고, 항 번호는 앞말의 어종으로 가른다. 대+잎은 순우리말 합성어이므로 1.(3)이다.

NoteBase

문 16.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안에 자신을 이해해 줄 _____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는 새삼스럽게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야속했다.

① 管鮑之交
② 過猶不及
③ 孤掌難鳴
④ 刮目相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성어의 뜻을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빈칸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해 주는 매우 가까운 벗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한다.

핵심 개념

관포지교(管鮑之交)는 관중과 포숙아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믿는 두터운 우정을 뜻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은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듯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괄목상대(刮目相對)는 상대가 크게 발전하여 새롭게 보게 됨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포지교는 서로의 마음과 능력을 깊이 알아주는 친밀한 우정이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문맥에 알맞다.
② X. 과유불급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관계를 말하는 성어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이며, 빈칸에는 관포지교가 알맞다.
③ X. 고장난명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렵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며, 자신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지 않는다.
④ X. 괄목상대는 상대의 발전을 보고 새롭게 대한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크게 발전한 상대를 새롭게 본다'는 뜻이며, 모든 사람이 야속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뜻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각각 지나침, 협력, 발전을 말할 뿐 인간관계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해 줄'이라는 문맥 단서가 관포지교를 가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성어 문제에서는 문장의 핵심 관계를 먼저 잡는다. 깊이 알아주는 벗·두터운 우정이면 관포지교, 지나침이면 과유불급, 혼자 하기 어려움이면 고장난명, 발전한 상대를 새롭게 봄이면 괄목상대이다.

암기 포인트

관포지교=관중·포숙아의 깊은 이해와 우정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과학에는 사물의 근본적 원리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고 개개의 사건들을 관통하여 지배하는 원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는 법칙 혹은 이론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며, 복잡해 보이는 세상사도 그러한 법칙과 이론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통달한 상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은 과학보다는 하위의 지적 상태를 지칭하는 의미가 꽤 강하다. 기술은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과학이라고 부를 정도의 근본적인 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나타낸다. 과학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술이 과학보다 하위인 이유는 과학은 자신의 내적인 논리를 따르는 반면 기술은 실제적인 응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열등한 상태라는 것이다.

① 비슷한 것에 빗대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구체적 대상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서술하고 있다.

④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이 과학과 기술을 어떤 논지 전개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묻는다. 글은 과학의 근본 원리 추구와 기술의 실제적 응용을 대비하여 둘의 차이를 드러낸다.

핵심 개념

비교·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과학은 내적 논리를 따르고 기술은 쓸모와 응용을 전제한다는 차이를 제시한다.
유추는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묘사는 대상의 모습이나 상태를 감각적으로 그려 내는 방식이며, 정의는 개념의 뜻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과학이나 기술을 다른 비슷한 대상에 빗대지 않는다. '비슷한 것에 빗대어'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과학과 기술의 성격과 위상의 차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O. 과학과 기술이라는 두 대상을 제시한 뒤, 과학은 근본 원리를 추구하고 기술은 실제 응용을 염두에 둔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③ X. 글에는 대상의 외양이나 구체적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 내는 내용이 없다. '구체적 대상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서술'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추상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념적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X. 과학과 기술의 뜻을 일부 설명하지만, 한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전개가 집중된 글은 아니다.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처럼 지문에 개념 설명이 들어 있더라도, 글 전체의 중심이 하나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과학과 기술을 각각 설명한 목적이 둘의 위상과 성격을 대비하는 데 있으므로 정의 방식이 아니라 비교·대조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글에 반복하여 함께 제시되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들의 공통점·차이점이 글의 중심인지 확인한다. 차이점을 축으로 설명하면 비교·대조이고, 다른 대상에 빗대면 유추이며, 뜻과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면 정의이다.

암기 포인트

과학과 기술처럼 두 대상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밝히면 비교·대조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적 윤리 이념을 굳게 고수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남녀 간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는 이야기가 더 우선시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정 소설은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에서 시작되어 17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이런 소설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작품이 『춘향전』이다. 사대부와 기생 집안의 여성이 사랑을 하고, 그 여성이 사대부의 정실부인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당대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이러한 『춘향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성숙을 거듭해 온 우리 서사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암행어사 설화, 열녀 설화 등 민간에 널리 유포된 설화뿐만 아니라 전대의 애정 소설도 작품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춘향전』에는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와 같은 17세기 소설의 요소도 들어 있다. 작품 속에서 『구운몽』에 등장하는 팔선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사씨남정기』에서 위기에 처한 사정옥이 꿈을 꾸고 황릉묘에서 이비를 만나는 장면이 춘향의 옥중 위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춘향전』은 ____

① 서사 문학사의 전통을 물려받으면서도 기존의 흐름을 바꾼 작품이다.

② 성리학적 윤리관을 드러낸 전형적인 서사 문학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③ 남녀 간의 파격적인 애정을 그려 내어 한문 소설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 낸 작품이다.

④ 유명한 작품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7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춘향전』이 앞선 서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애정 소설의 기존 흐름을 바꾼 작품이라는 두 성격을 묻는다.

핵심 개념

전통 계승은 앞선 설화와 소설의 소재·장면·요소를 받아 작품을 형성하는 성격이다. 소설사적 혁신은 당시의 일반적 경향과 다른 내용으로 기존 흐름을 전환하는 성격이다. 『춘향전』은 암행어사 설화·열녀 설화와 전대 애정 소설, 『구운몽』·『사씨남정기』의 요소를 수용하는 한편, 파격적인 남녀의 사랑을 통해 애정 소설의 흐름을 바꾸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춘향전』은 오랜 우리 서사 문학의 전통과 전대 작품의 요소를 물려받았고, 동시에 애정 소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던 기존 흐름을 바꾸었다.

② X. 틀린 표현은 '성리학적 윤리관을 드러낸 전형적인'이다. 당시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사사로운 남녀의 애정보다 가문·국가의 질서를 중시했으나, 『춘향전』은 기생 집안 여성인 춘향이 사대부의 정실부인이 되는 파격적 사랑을 그렸다. 올바르게는 성리학적 질서 아래에서는 파격적인 애정 소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한문 소설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 낸'이다. 지문은 한문 소설에서 시작한 애정 소설이 17세기까지 꾸준히 발전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춘향전』이 애정 소설의 기존 흐름을 바꾼 작품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17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이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는 『춘향전』보다 앞선 17세기 소설로, 그 요소와 장면이 『춘향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올바르게는 『춘향전』이 17세기 소설의 요소를 수용한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성리학적 윤리관'과 『춘향전』의 파격성을 뒤섞은 선지이다. ③은 애정 소설의 흐름을 바꾼 대상을 한문 소설의 폭발적 성장으로 바꾸었고, ④는 선행 작품과 후대 작품의 영향 관계를 거꾸로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에서 앞 문단은 기존 흐름을 바꾼 점을, 뒤 문단은 설화와 전대 소설에서 받은 영향을 제시한다. 결론 선지는 이 두 내용을 함께 담는지, 영향의 방향을 거꾸로 놓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춘향전』은 서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애정 소설의 흐름을 전환한 작품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한 진보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서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가능해지자 위험하고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농부로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를 폭발시키고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① 인류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② 농업혁명은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이지만 더 안락한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

③ 인류가 자발적으로 수렵 채집의 삶을 포기하고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농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여분의 식량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피지배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농업혁명을 두뇌의 진보와 안락한 삶의 출발로 보는 통념을 글쓴이가 부정하는지, 그리고 농업혁명의 실제 영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념적 농업혁명 서사는 인간이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수렵 채집을 떠나 더 나은 농부의 삶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이를 환상으로 보며, 수렵 채집인은 이미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농업혁명은 농부의 노동과 불만을 키우며 인구 증가와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수렵 채집인들이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수렵 채집인도 인류이므로 자연의 원리를 이전부터 이해했다는 진술은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한다.

② X: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학자들이 만들어 낸 통념적 이야기일 뿐이며, 글쓴이는 그 이야기를 '환상'이라고 부정한다. 올바르게는 농업혁명이 인간 두뇌의 진보를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더 안락한 시대도 열지 못했다.

③ O: 글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수렵 채집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 농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환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류가 자발적으로 농부의 삶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O: 글은 농업혁명 뒤 늘어난 식량이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가를 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구를 폭발시키며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했다고 한다. 이는 피지배층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진술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농업혁명 이후 식량 총량이 늘었다는 사실과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라는 해석을 묶어 놓은 선지이다. 글쓴이는 식량 증가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지적 진보나 안락한 삶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판적 글에서는 글쓴이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에 붙은 통념적 평가까지 인정하는지 구분한다. '식량 총량 증가'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술 발전'과 '진보'는 같은 뜻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농업혁명: 식량은 증가, 삶의 질 향상은 아님. 인구 증가와 착취 강화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 자신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다시 조직의 자존감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자존감이 높으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자존감은 자존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①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

②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③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④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는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그리고 자존감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핵심 개념

자존감은 자신과 타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우월감이다.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은 타인과의 비교 여부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존중하지만, 자존심이 높으면 상대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자존감이 개인과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이다. 글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존심만으로 자존감의 유무나 그에 따른 행동을 추론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③ O: 관리자의 자존감은 구성원의 자존감으로, 다시 조직의 자존감으로 전이된다고 하였으므로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④ O: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모두 '자신을 높게 보는 마음'으로 뭉뚱그려 같은 성질이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우월감이고, 자존감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개념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각 개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타인과의 비교나 우월감이 핵심이면 자존심이고, 존재 가치의 인정과 자기·타인 존중이 핵심이면 자존감이다.

암기 포인트

자존감은 존재 가치 인정과 존중, 자존심은 타인 비교에서의 우월감이다.

NoteBase